

도시 및 농어촌 아동의 가정내 구타발생률 및 관련요인 조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전 계 순 · 박 정 한

= Abstract =

A Survey on Child Batter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Related Factors in Urban and Rural Areas

Kae Soon Jeon, Jung Han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determine the incidence rate of child battering and related facto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255 children in 4th and 5th grades of two elementary schools (one in the upper economic class area with 519 students and the other in the lower economic class area with 504 students) in Taegu and two schools in rural areas of Kyungpook province (120 and 112 students, respectively) from 1st May to 10th May 1990.

Total number of children who were battered during one-month period (1-30 April 1990) prior to the survey was 918 (73.1%). Among the battered children 87 (6.9%) were severely battered (twice or more in a month by kicking or more severe method) and 831 children (66.2%) were moderately battered (all other battering than severe battering). The percentage of battered children and degree of battering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schools in Taegu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Common reasons for battering were disobedience (61.9%), making troubles (34.9%), and poor school performance (33.3%). However, 16.1% of severely battered children responded that the perpetrators battered them to wreak their anger and 5.7% of them did not know the reason why they were battered. A majority of the battered children (65%) regretted their fault after being battered but 20.7% of the severely battered children wanted to run away and 9.2% of them had an urge to commit suicide. While most of the physical injuries due to battering were minor as bruise (52.7%) but some of them were severe, e.g., bone fracture (2.5%), skin laceration (1.5%), and loss of consciousness (0.2%). The common psycho-behavioral complaints of the severely battered children were unwillingness to study (31%), unwillingness to live (17.2%), and reluctance to go home (13.8%).

The incidence rate of severe battering was significantly higher ($p=0.018$) among the children living in a quarter attached to a store (14.0%) than the children living in an apartment (6.6%)

and individual house (6.2%). The incidence rate of severe battering was higher among children living in a rental house (8.4%) than children living in their own house 6.3%) ($p=0.005$). The children of father only working (5.1%) and mother only working (4.5%) had a lower incidence rate of severe battering than the children of both parents working (9.1%) and both parents unemployed (20.7%) ($p=0.006$). More children were battered when there was a sick family member (80.8%) compared with the children without a sick family member (71.4%) ($p=0.001$). The incidence rates of severe and moderate battering increased as the frequency of quarreling between mother and father increased ($P=0.000$). The percentage of unbattered children was higher among children whose father's occupation was professional (39.4%) than that of the total study subjects (26.9%) ($p<0.001$).

Key Word: child battering, incidence rate, risk factors.

I. 서 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존의 가치 및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태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성장과 더불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적인 가치와 행동체계를 습득해야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처벌도 교육적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처벌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으며 물리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일 수도 있다. 보통 처벌이라고 하면 체벌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되고 있으나, 언어적인 비난이나 질책도 처벌일 수 있다(Rimm & Masters, 1979). 또한 처벌의 한 방법인 아동구타는 주로 물리적으로 힘에 의하여 아동의 부모나 그를 보살피는 성인에 의해 해를 입는 경우를 의미한다(홍강의, 1987). 이러한 가정내 아동구타 가운데는 훈육 목적이 아닌 아동학대의 일종인 것이 있으며, 이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후 동서고금을 통해 수없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았다(김광일과 고복자, 1987).

1960년대에 들어와 Kempe 등(1962)이 "구타아동 증후군"을 보고한 것이 많은 의학적 관심을 끌게 되어 아동학대 및 구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는 1986년 전국표본조사에 의하면 연간 약 160만명(어린이 1,000명당 25.2)의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으며, 약 675,000명(1,000명당 10.7)의 아동이 구타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1,100명이 이로 인하여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대한 구타를 훈육이나 교육적인 방법으로 가정내 문제로 다루어 왔으므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동현과 홍강의(1987)가 4,000여 명의 의사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보내어 시행한 조사에서, 490명이 설문에 응해 그중 228명이 구타에 의한 아동학대를 관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김광일과 고복자(1987)가 서울지역 2개 국민학교 3, 4학년 1,142명을 대상으로 1년간에 가정내 구타발생률을 설문 조사한 것에 의하면 8.2%가 심한 구타를, 그리고 58.0%는 중증도의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벌의 일종인 아동구타는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먼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는데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으며,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야기할 수 있고,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효과가 있게 된다(Rimm & Masters, 1979). 또한 반복적 구타로 인해 정신신체장애, 행동장애를 초래하고 구타당한 아동이 자라서 폭력 구사자가 되거나,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김광일과 고복자, 1987) 단순한 가정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구타 현황을 조사한 것은 주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간 또는 사회 계층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구타와 관련된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없다. 본 연구는 서울이외의 일부 도시아동과 농어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구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0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내의 공립국민학교 중 경제적으로 중상류층 밀집지역의 국민학교 1개교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국민학교 1개교, 농촌 및 어촌 국민학교 각각 1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도시 국민학교에서는 4(9세), 5(10세)학년 각각 5개 학급 1,023명 그리고 농어촌 국민학교에서는 4, 5학년 전원 2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작성한 설문지를 각 학급에서 담임선생이 설명을 한 뒤 집단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 직전 한 달(1990년 4월 1일 ~30일) 동안에 가족으로부터 매맞은 회수, 매맞은 이유, 매를 때린 사람, 때린 방법, 매맞은 결과(상처), 매맞은 뒤의 느낌, 그리고 매맞은 것과 관련된 정신 신체증상 및 심리적, 행동적문제 등이었다. 이외 가정환경(주택형태, 가족구성원, 부모생존여부), 아동의 특성(학년, 성별, 출생순위, 건강수준), 부모의 특성(취업상태, 직업, 학력)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총 1,260부가 배부되어 100% 회수 되었으나 불완전하게 기입된 5부를 제외한 1,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타의 정도를 심한 것과 중등도로 구분하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발로 차거나 물어뜯는 정도 이상의 매를 2회 이상 맞은 경우를 심하게 매맞은 아동으로 정의하고, 발로 차거나 물어 뜯는 정도 이상의 심한 매를 맞았으나 1회 매맞은 경우와 회수에는 관계없이 주먹으로 한 두차례 때린 정도 이하의 매맞은 경우는 중등도의 구타로 정했으며, 전혀 매맞지 않은 아동은 안맞은 아동으로 정했다. 구타발생률은 위의 정의에 따라 매맞은 아동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학교별, 도시와 농어촌별, 부모 특성별 그리고, 아동의 특성별로 비교하였다. 농어촌지역은 조사대상 아동의 수가 적었고, 두학교 사이에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하나로 묶어 분석하였다.

III. 성 적

조사대상 아동 1,255명중 지난 한달 (4월 1일~30일) 동안 가족에게 매맞은 아동은 918명으로 73.1%였고 매

맞지 않은 아동은 337명으로 26.9%였다. 매맞은 빈도는 한달에 한 번이 전체 대상자의 25.3%였고, 두번이 19.5%를 차지했으나, 다섯 번 이상 맞은 경우도 17.5%나 되었다(표 1).

가장 심하게 매맞았을 때 그 정도는 매맞은 아동의 61.4%가 회초리로 맞았고 12.6%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엉덩이를 맞았다. 그러나 주먹으로 맞는 경우(7.0%), 발로 차이거나 물어 뜯긴 경우(6.7%), 주먹이나 막대기로 사정없이 맞은 경우(6.5%)도 있었고 칼이나 흉기로 위협당하거나 찔린 경우도 3명 있었다(표 2).

대구시내에서 중상류 밀집지역에 있는 A학교에서는 73.8%가 매를 맞았으며 심하게 맞은 아동은 6.4%였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B학교는 73.2%가 매를 맞았으며 6.5%가 심하게 매를 맞아 두 학교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어촌지역의 C학교 아동들 가운데는 75%가 매를 맞았으며 10.0%가 심하게 매를 맞은 반면, 농촌지역 D학교에서는 68.9%가 매를 맞았으며 8.0%가 심하게 매를 맞아 지역과 매맞은 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4, 5학년 간에는 매맞은 울에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심하게 맞은 울은 4학년이 6.1%인데 비해 5학년은 7.8%로 더 높았다. 남녀별로는 심하게 매맞은 경우는 남학생이 8.3%로 여학생의 5.3%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3).

친아버지가 있는 아동 가운데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맞은 아동이 36명(3.0%), 친어머니가 있는 아동 가운데 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매맞은 아동은 26명(2.1%), 의붓모로부터는 2명(20%), 양부모로부터는 1명(20%), 형제자매로부터는 19명(2.4%)이 심하게 매를 맞았다. 중등도의 매를 맞은 아동은 아버지에게 251명(20.6%), 어머니 471

Table 1. Distribution of children by frequency of battering during one-month period (1-30, April, 1990)

Frequency of battering	No. of children	%
0	337	26.9
1	317	25.3
2	245	19.5
3	101	8.0
4	35	2.8
5+	220	17.5
Total	1,255	100.0

Table 2. Distribution of children by most severe battering method during one-month period (1~30 April, 1990)

Most Severe battering method	No. of children	%
Hit with a whip	564	61.4
Pushing, shoving, or grabbing	29	3.2
Slapping on cheek or buttock	115	12.6
Hit with fist once or more	64	7.0
Kicking or biting	62	6.7
Hit or tried to hit with something	21	2.3
Beat up with fist or stick	60	6.5
Threatened with a knife or weapon	2	0.2
Stabbed with a knife or weapon	1	0.1
Total	918	100.0

명(38.8%), 의붓모 5명(50%), 형제자매 92명(11.9%)으로 의붓모에게 아동이 심한 및 중등도의 매맞은율이 가장 높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매맞은율이 제일 낮았다(표 4).

조사대상 아동이 매를 맞은 이유는 부모 말을 듣지

Table 4. Perpetrators and degree of battering

Perpetrator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No.	Total No.	
	Severe		Moderate				
	No.	%	No.	%			
Biologic father	36	3.0	251	20.6	927	76.4	1,241
Biologic mother	26	2.1	471	38.8	719	59.1	1,216
Step mother	2	20.0	5	50.0	3	30.0	10
Step parents	1	20.0	0	0.0	4	80.0	5
Grand father	0	0.0	2	9.5	19	90.5	21
Grand mother	2	2.1	7	7.4	86	90.5	95
Siblings	19	2.4	92	11.9	665	85.7	776
Others	1	16.7	3	50.0	2	33.3	6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않아서가 61.9%, 말썽을 부려서 34.9%, 공부를 못해서가 33.3%의 순이었다.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경우도 말을 듣지 않아서 56.3%, 말썽을 부려서 54.0%,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42.5%였고 중등도로 매맞은 아동은 각각 62.5%, 32.9%, 32.4%를 차지했다. 심하게 매맞은 아동중에는 잘못된 일이 없는데 때리는 사람의 화풀이로가 16.1%, 이유를 모르겠다는 경우도 5.7% 있었다(표 5).

구타당한 결과 상처가 나지 않은 경우는 구타당한 아동의 36.5%였고 멍이 들었다가 52.7%, 코피가 났다 3.8%, 팔 다리가 부러졌다가 2.5%였다(표 6).

매를 맞지 않은 아동들과 매맞은 아동들의 정신신체

Table 3. Percentage of battered children during one-month period (1~30 April, 1990) by school, grade and sex

Character-istics	Total No. of children	Unbattered		Battered				X ² -test p-value	
		No.	%	Moderate		Severe			
				No.	%	No.	%		
School									
Urban	A	519	136	26.2	350	67.4	33	6.4	
	B	504	135	26.8	336	66.7	33	6.5	4.43
Rural	C	120	30	25.0	78	65.0	12	10.0	0.62
	D	112	36	32.1	67	59.8	9	8.1	
Grade	4th	639	167	26.1	433	67.8	39	6.1	2.01
	5th	616	170	27.6	398	64.6	48	7.8	0.37
Sex	Male	671	181	27.0	434	64.7	56	8.3	4.68
	Female	584	156	26.7	397	68.0	31	5.3	0.10
Total		1,255	337	26.9	831	66.2	87	6.9	

Table 5. Reasons for battering by degree of battering

Reason for battering	Degree of battering				Total	
	Severe		Moderate			
	No.	%	No.	%	No.	%
	(N=87)		(N=831)		(N=918)	
Disobedience	49	56.3	519	62.5	568	61.9
Poor school performance	37	42.5	269	32.4	306	33.3
Making trouble	47	54.0	273	32.9	320	34.9
Being lazy	14	16.1	168	20.2	182	19.8
Anger of perpetrator	14	16.1	75	9.0	89	9.7
Frequent illness	2	2.3	3	0.4	5	0.5
Stealing	1	1.1	8	1.0	9	1.0
Bed wetting	1	1.1	8	1.0	9	1.0
Don't know the reason	5	5.7	26	3.1	31	3.4
Others	2	2.3	16	1.9	18	2.0

Note : Total percentage exceeds 100% because the respondents were allowed to choose more than one reason.

Table 6. Distribution of battered children by injury due to battering

Injuries due to battering	No. of children	%
No wound	335	36.5
Nasal bleeding	35	3.8
Bruise	483	52.7
Scratched or biting wound	21	2.3
Burn by burning cigarette	1	0.1
Burn by hot water or flame	1	0.1
Laceration wound	14	1.5
Teeth knocked out	3	0.3
Sprain or fracture of extremities	23	2.5
Loss of consciousness	2	0.2
Total	918	100.0

증상 호소율을 비교한 결과,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13.8%와 중등도의 매맞은 아동의 11.1%가 팔 다리가 쭈신다고 하여 매맞지 않은 아동의 7.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높았다. 중등도로 매맞은 아동 중 두통을 호소한 아동이 19.5%, 정신이 가물거리거나 흐릴 때가 있는 아동이 5.4%로 매맞지 않은 아동의 14.5% 및

2.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높았다(표 7).

심리적 및 행동상의 문제를 호소한 것을 보면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31%가 공부하기 싫다고 했으며 살기 싫다 17.2%, 학교가기 싫다와 집에 가기 싫다가 각각 13.8%, 그리고 집에가기 겁이 난다가 12.6%로 매맞지 않은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1$) 높은 호소율을 나타냈다. 또한 중등도의 매맞은 아동들도 공부하기 싫다 26%, 학교가기 싫다와 살기 싫다가 각각 9.5%, 집에 가기 겁난다가 3.1%로 매맞지 않은 아동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높은 호소율을 나타내었다(표 8).

매맞은 후의 느낌에 대해, 매맞은 아동의 65%가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며, 16.3%는 때리는 사람이 미웠다고 했고, 13%는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러한 느낌은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경우에 각각 44.8%, 23.0%, 20.7%인데 비해 중등도의 매맞은 아동은 각각 67.2%, 15.6%, 12.3%로 심하게 매맞은 경우에 뉘우치는 어린이의 비율이 더 낮았다. 심하게 매맞은 어린이들 가운데는 죽고 싶었다고 한 어린이도 9.

Table 7. Complaints of psychosomatic symptoms by degree of battering

Psychosomatic symptom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Severe		Moderate			
	No.	%	No.	%	No.	%
	(N=87)		(N=831)		(N=337)	
Headache	12	13.8	162	19.5*	49	14.5
Abdominal pain	9	10.3	113	13.6	41	12.1
Pain sensation on extremities	12	13.8*	92	11.1*	24	7.1
Shortness of breath	2	2.3	46	5.5	12	3.6
Stuttering	4	4.6	41	4.9	13	3.9
Frequent urination	4	4.6	30	3.6	12	3.6
Bed wetting	2	2.3	9	1.1	2	0.6
Difficulty to fall asleep	14	16.1	107	12.9	32	9.5
Feel tired	9	10.3	116	14.0	46	13.6
Poor appetite	21	24.1	217	26.1	76	22.6
Dim & drowsy consciousness	2	2.3	45	5.4*	8	2.4

* : $p<0.05$ compared with unbattered children by t-test

Table 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mplaints by degree of battering

Psychological & behavioral complaints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Severe (N=87)		Moderate (N=831)		(N=337)	
	No.	%	No.	%	No.	%
Unwilling to study	27	31.0**	216	26.0**	60	17.8
Reluctant to go to school	12	13.8**	79	9.5*	19	5.6
Reluctant to go home	12	13.8**	40	4.8	12	3.6
Fear for going home	11	12.6**	26	3.1*	3	0.9
Unwilling to live	15	17.2**	79	9.5*	17	5.0
Unamusing	8	9.2	64	7.7	18	5.3
Don't like making a friend	6	6.9	19	2.3*	7	2.1
Frequent quarreling with friend	2	2.3	37	4.5	9	2.7
Smashing things in anger	6	6.8	39	4.7	17	5.0
Eat too much	3	3.4	47	5.7	16	4.7

* : p<0.05, **<0.01 compared with unbattered children by t-test

2%나 되어 매맞은 정도와 맞은후의 느낌에는 유의한(p=0.0001) 관련성이 있었다(표 9).

남아들은 심하게 매맞은 경우가 장남이 6.9%인데 비해 차남은 10.4%로 높았고 삼남이상은 7.5%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아인 경우, 장녀가

Table 9. Children's feeling after being battered by degree of battering

Feeling after being battered	Degree of battering				Total	
	Severe		Moderate			
	No.	%	No.	%	No.	%
Regretted my wrong doing	39	44.8	558	67.2	517	65.0
Hated the perpetrator	20	23.0	130	15.6	150	16.3
Wanted to run away	18	20.7	102	12.3	120	13.0
Wanted to commit suicide	8	9.2	22	2.6	30	3.4
Others	0	0.0	6	0.7	6	0.7
No response	2	2.3	13	1.6	15	1.6
Total	87	100.0	831	100.0	918	100.0

X²=23.23, df=4, p=0.0001

Note : Others and no response were combined for the significance test

심하게 매맞은 경우는 4.4%, 차녀, 삼녀 이상이 각각 5.8%, 5.9%로 나타났다(표 10).

주택의 형태별로는 심하게 매맞은 율이 아파트에 사는 아동의 경우 6.6%, 단독주택에 사는 아동은 6.2%, 그리고 상가건물에 사는 아동이 14.0%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 주택의 형태와 매맞은 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8) 관련성이 있었다.

집의 소유형태별로는 전세집에 사는 아동이 심하게 매를 맞은 경우가 8.4%, 중등도로 매맞은 경우는 70.7%인데 비해 자기집에 사는 어린이들의 6.3% 및 64.2%로 주택 소유형태와 심한 매맞은 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0.005) 관련성을 보였다.

Table 10. Degree of battering by sex and birth order of battered child

Sex	Birth order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X ² -test P-value
		Severe		Moderate					
		No.	%	No.	%	No.	%		
Male	1	17	6.9	159	65.2	68	27.9	244	2.19
	2	25	10.4	152	63.3	63	26.3	240	0.70
	3+	14	7.5	123	65.8	50	26.7	187	
Female	1	9	4.4	138	67.0	59	28.6	206	3.64
	2	13	5.8	161	71.6	51	22.6	225	0.46
	3+	9	5.9	98	64.1	46	30.0	153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Table 11. Degree of battering by housing type and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Housing and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No.	X ² -test P-value
	Severe		Moderate		No.	%		
	No.	%	No.	%				
Type of house								
Apartment	27	6.6	255	63.0	123	30.4	405	11.94
Individual house	47	6.2	515	68.0	195	25.8	757	0.018
Quarters in store	13	14.0	61	65.6	19	20.4	93	
House ownership								
Own	55	6.3	561	64.2	257	29.5	873	10.45
Rent	32	8.4	270	70.7	80	20.9	382	0.005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Both parents	43	9.1	312	66.3	116	24.6	471	
Father only	36	5.1	473	66.5	202	28.4	711	18.18
Mother only	2	4.5	28	63.7	14	31.8	44	0.006
Both parents unemployed	6	20.7	18	62.1	5	17.2	29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부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양친 모두 취업을 않은 경우 심하게 맞은 아동이 20.7%, 중등도의 매맞은 아동은 62.1%였으며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는 각각 9.1%, 66.3%로 양친중 한쪽만 취업한 경우에 비해 심하게 매맞은 비율이 높아 부모의 취업상태와 심하게 매맞은 비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06) 관련성을 보였다(표 11).

아버지의 직업별로는 전문직 즉, 교수, 의사, 목사, 약사, 교사인 경우 심하게 매맞은 아동은 5.8%, 중등도의 매를 맞은 아동이 54.8%, 그리고 매맞지 않은 아동이 39.4%로 타직종에 비해 매맞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1). 상인, 무직, 사업가,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인 경우에 심하게 매맞은 아동이 각각 11.4%, 11.0%, 9.7%, 8.3% 그리고 7.2%의 순으로 높았다(표 12).

부모의 학력과 매맞은 율 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심하게 매맞은 율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 또는 대졸일 때 아버지의 경우 8.1%와 5.5%, 어머니의 경우 7.6%와 5.7%로 국졸 학력의 부모들보다 더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에 심하게 매맞은 아동이 7.6%, 어머니의 학력을 모를 경우는 7.3%로

Table 12. Degree of battering by father's occupation

Father's occupation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No.
	Severe		Moderate		No.	%	
	No.	%	No.	%			
Professional	6	5.8	57	54.8	41	39.4*	104
Salary worker	14	3.7	256	68.3	105	28.0	375
Businessman	9	9.7	63	67.8	21	22.5	93
Engineer	13	8.3	110	70.0	34	21.7	157
Farmer	7	6.4	71	64.5	32	29.1	110
Fisherman	1	3.2	23	74.2	7	22.6	31
Merchant	20	11.4	113	64.2	43	24.4	176
Laborer	9	7.2	85	68.0	31	24.8	125
Others	0	0.0	7	63.6	4	36.4	11
Unemployed	8	11.0	46	63.0	19	26.0	73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 p<0.01 compared with total by Z-test

부모의 학력과 매맞은 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13).

가족 중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다른 질병으로 앓고 있는 가정의 아동은 심하게 매맞은 비율이 10.7%,

Table 13. Degree of battering by parents educational level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No.	X ² -test P-value
	Severe		Moderate		No.	%		
	No.	%	No.	%				
Father								
Primary school	4	4.4	63	70.0	23	25.6	90	
Middle school	11	8.3	79	59.9	42	31.8	132	10.45
High school	28	8.1	241	69.4	78	22.5	347	0.23
College	21	5.5	247	64.3	116	30.2	384	
Unknown	23	7.6	201	66.5	78	25.9	302	
Mother								
Primary school	10	6.8	94	64.4	42	28.8	146	
Middle school	13	6.5	131	65.5	56	28.0	200	7.81
High school	28	7.6	250	67.7	91	24.7	369	0.45
College	12	5.7	128	61.0	70	33.3	210	
Unknown	24	7.3	228	69.1	78	23.6	330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중등도의 매맞은 비율은 70.1%로, 질병을 앓는 가족이 없는 아동의 6.1%와 65.3%보다 높은 율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4).

부모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심한 매를 맞은 아동이 4.4%, 중등도의 매맞은 아동은 55.9%였는데 비해, 일년에 한두번 다투는 경우에는 5.9%와 71.4%, 한달에 한두번 다투는 경우에는 13.7%와 70.8%,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번 다투는 경우에는 7.7%와 84.6%로 부모가 자주 다투수록 어린이가 매맞은 비율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p=0.000) 관련성을 보였다(표 15).

Table 14. Degree of battering by sick family member

Sick family member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No.
	Severe		Moderate		No.	%	
	No.	%	No.	%			
Yes	25	10.7	164	70.1	45	19.2	234
Parents	16	10.7	107	71.3	27	18.0	150
Grandparents	5	11.9	31	73.8	6	14.3	42
Sibling	4	9.5	26	62.0	12	28.5	42
None	62	6.1	667	65.3	292	28.6	1,021
Total	87	6.9	831	66.1	337	26.9	1,255

X²=12.71, df=2, p=0.0017 compared yes vs none

어린이 스스로 판정한 어린이의 건강상태별로는 자주 앓는 아동이 심하게 매맞은 비율은 7.8%, 보통정도의 건강상태라고 생각한 아동은 7.3%, 그리고 아주 건강하다고 답한 아동은 6.1%로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할 수록 매를 적게 맞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아니었다(표 16).

Table 15. Degree of battering by frequency of quarrel between mother and father

Frequency of quarrel between mother and father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No.
	Severe		Moderate		No.	%	
No.	%	No.	%	No.			%
None	18	4.4	226	55.9	161	39.7	405
Once or twice a year	37	5.9	446	71.4	142	22.7	625
Once or twice a month	23	13.7	119	70.8	26	15.5	168
Once or twice a week	1	7.7	11	84.6	1	7.7	13
Parent absent	8	18.2	29	65.9	7	15.9	44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X=64.93, df=6, p=0.0000

Note: "Parent absent" group was excluded for the significance test

Table 16. Degree of battering by self-rated health of child

Self-rated health level of child	Degree of battering				Unbattered		Total No.
	Severe		Moderate		No.	%	
	No.	%	No.	%	No.	%	No.
Good	28	6.1	301	65.6	130	28.3	459
Moderate	51	7.3	458	65.5	190	27.2	699
Frequently sick	7	7.8	69	76.7	14	15.5	90
No response	1	14.2	3	42.9	3	42.9	7
Total	87	6.9	831	66.2	337	26.9	1,255

$X^2=8.71$, $df=6$, $p=0.19$

IV. 고 찰

조사대상을 증상류 밀집지역의 1개교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1개교 그리고 농촌지역 1개교와 어촌지역 1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생활수준에 따라 그리고 도농간에 구타발생률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4, 5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으면서 구타발생률이 높은 연령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을 최근 한 달로 한 것은 응답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매맞은 정도를 심한 것과 중등도로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지역에서 사용한 방법(김광일과 고복자, 1987)은 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상의 정도로 1년에 12회 이상 반복 구타당한 경우를 심한 구타로 정의했으나 본 조사에서는 발로 차거나 물어뜯는 정도 이상으로 한 달 동안에 두번 이상 구타당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는 조사기간이 일년이었는데 비해 본 조사에서는 최근 한 달 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지난달에 한번 일어난 구타가 심한 구타로 구분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경우 자주 심한 구타를 당하던 어린이가 우연히 지난 한 달 동안에는 한번 이하만 맞은 경우 심한 구타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 칼이나 흉기로 한번 찔린 경우가 중등도의 구타로 구분되었고 주먹으로는 자주 맞아도 중등도로 구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으로 매를 때린 경우와 어린이 학대로 구타한 것이 구별되지 않은 것도 본 조사의 제한점이다.

본 조사에서 심하게 매맞은 아동이 6.9%로 서울지역에서 조사된 8.2%보다 낮고 중등도의 매를 맞은 아동은 66.2%로 서울지역의 58%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조사대상의 차이, 조사기간의 차이, 매의 정도를 구분한 기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큰 차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구타발생률이 도시의 두 학교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 구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이 매맞은 가장 흔한 이유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발생을 부려서 또는 공부를 못해서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일반가정에서 흔한 일로 예상된 결과이다. 그러나 심하게 매맞은 어린이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때리는 사람의 화풀이로 때렸다가 16.1%, 이유를 모르고 맞았다가 5.7% 있는 것은 훈육의 목적 외에 때리는 사람의 성격상 또는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어린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훈육의 목적으로 때린 경우라도 그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아 훈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매맞은 후 약 3분의 2 정도의 어린이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나, 심한 매를 맞은 아동중에는 때리는 사람이 미웠다고 한 어린이가 23%, 집을 나가고 싶었다가 20.7%, 죽고 싶었다가 9.2%로서 구타를 당한후 강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어린이들이 상당수 있어 부분별하거나 지나친 매질은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타하는 사람은 친아버지가 심한 매를 때린 경우는 3.0%, 친어머니는 2.1%인데 비해 중등도의 매는 친어머니가 친아버지보다 더 많이 때려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때렸는데 이것은 자녀와 대하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붓어머니 또는 양부모하의 어린이가 심한 매를 맞은 비율이 20%로 친부모에 비해 높은 율을 나타내었다. 비록 의붓어머니 또는 양부모하의 어린이가 15명으로 소수에 불과했으나 심한 매를 맞은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 통념과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구타방법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발로 차거나 물어뜯기, 심지어는 칼 또는 흉기로 찌른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

주먹으로 때리기 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맞은 경우는 매맞은 아동의 22.9%나 되었다. 또 구타결과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36.5%뿐이었고 52.7%는 멍이 들었다고 했으며 살이 찢어졌거나, 팔 다리가 빠졌거나 부러진 경우, 또는 정신을 잃은 경우도 4.8%나 되었다. 매맞은 어린이들이 매 맞지 않은 어린이보다 팔 다리가 쭈신다, 잠이 안온다, 밤에 오줌을 싼다고 한 비율이 높은 것은 매 맞은데 따른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심리적, 행동적 면에서도 공부하기 싫다, 집에 가기 겁난다, 살기 싫다, 그리고 율화가 치밀어 물건을 부순다는 어린이의 비율이 매 맞지 않은 아동보다 높아 매 맞는 것이 신체적인 손상 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발달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구타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심하게 매맞은 율은 높았는데 이는 남학생이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김보경 등, 1990), 남아를 존중하면서 효성을 기르기 위해 더 엄하게 훈육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ieh-Mak & Chuang, 1983)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출생순위에 따라 비록 5% 유의수준에는 미달했으나 장남(6.7%) 보다 차남(10.4%)이 심한 매를 맞은 율이 높았고 여아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적었는데 장남은 가족의 혈통을 잇는 가치(곽영숙과 홍강의, 1987)로서 대우를 잘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 자신의 요인으로는 어린이 스스로 평가한 건강상태가 건강하거나 보통인 아동보다 자주 앓는 아동이 구타발생 율이 높아 아동이 구타로 인해 앓게 되었는지, 앓으므로 인해 구타를 당했는지는 본 조사 성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미숙이나 심신 장애아들이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Martin, 1972)로 미루어 보아 어린이의 잦은 질병이 구타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어린이보다는 상가에 사는 경우, 자기집에서 사는 어린이보다는 세들어 사는 경우에 심한 매를 맞은 비율이 높았다. 부모가 맞벌이 하는 아동과 부모가 직업이 없는 아동이 매를 맞은 비율이 아버지나 어머니만 직업이 있는 아동보다 높았다. 또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가 매맞지 않은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비록 5% 유의수준에는 미달했으나 심한 구타율도 상인, 무직, 사업가, 기술자, 노동자에 비해 낮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고졸, 중졸인 경우와 부모의 학력을 모른다고 답한 아동들이 대졸에 비해

심한 매를 맞은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소견은 부모의 학력은 직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직업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모의 학력이 국민학교 이하이면 대부분 농촌 또는 어촌에 거주하는 농부 또는 어부들인데 그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반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도시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상점에 딸린 집에 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자녀양육 환경은 아파트보다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놀이터가 없는 등 불리한 점이 많으며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 자녀가 자주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부모도 대화보다는 매를 들게 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가족중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질병을 앓는 가족이 없는 아동보다 심하게 매맞은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내에 환자가 있다는 것이 다른 가족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구타의 유발동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사이에 다투는 빈도가 높을 수록 어린이가 매맞은 율이 높은 것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높을수록 구타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Clake, 1976)과 일치하며, 부부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아동훈육에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inmentz, 1977).

본 조사성적으로 보아 가정내의 아동구타는 가정내 환경 및 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 구타발생 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신생아에서 5세 사이라는 보고(Kempe 등, 1962)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제 아동 구타발생 율은 본 조사성적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른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 매를 통한 훈육방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으며(한국갤럽조사, 1980),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발달과 심리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이해부족과 아동의 도전적 행동과 거부반응간의 상호작용의 결과(홍강의, 1987)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구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교육 및 대중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양육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동구타의 문제가 있는 가

정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가정내 아동구타 발생현황과 그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내 2개 국민학교(중상류 밀집지역 학교 519명,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504명)와 경북도내 농·어촌 각 1개교(120명 및 112명)의 4, 5학년(대구시내 학교에서는 각학년마다 5개 학급씩 무작위 추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전원) 아동 1,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직전의 한달(1990년 4월 1일~30일)동안 매맞은 아동은 918명(73.1%), 매맞지 않은 아동은 337명(26.9%)이었으며 매맞은 아동중 심하게 매맞은 아동(발로 차는 정도 이상으로 한달에 2회이상 맞은 경우)이 87명(6.9%), 중등도(심한 정도 이외의 모든 매)로 매맞은 아동이 831명(66.2%)이었다. 매맞은 비율과 정도는 도시의 두학교 간과 도시와 농·어촌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매맞은 이유는 부모말을 듣지 않아서(61.9%), 말썽을 부려서(34.9%), 공부를 못해서(33.3%)가 가장 많았으나 심하게 매맞은 아동 가운데는 잘못된 일이 없는데 때리는 사람의 화풀이로(16.1%) 또는 이유를 모르고 맞았다(5.7%)는 아동도 있었다. 매맞은 후에는 대부분 아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하지 않겠다고 했으나(65%), 심하게 매맞은 경우에 집을 나가버리고 싶다가 20.7%, 죽고 싶었다고 한 아동이 9.2%나 되었다. 매맞은 결과로 멍이 들은 경우가 매맞은 아동의 52.7%로 가장 높았으나 팔절(2.5%), 살이 찢어진 경우(1.5%)도 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0.2%)도 있었다. 심리적 행동상의 장애로는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31%가 공부하기 싫다, 살기 싫다 17.2%, 집에 가기 싫다 13.8%로 매맞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호소율을 보여 아동구타에 따른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맞은 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요인은 아파트(6.6%)나 단독주택(6.2%)에 사는 아동보다 상가건물(14.0%)에 사는 아동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18$) 자기집(6.3%)에서 사는 아동보다 세들어 사는 아동(8.4%)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다($p=0.$

005). 부모가 맞벌이 하는 아동(9.1%)과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아동(20.7%)이 심한 매를 맞은 율이 아버지(5.1%)나 어머니(4.5%)만 직업이 있는 아동보다 높았다($p=0.006$). 가족 중 질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아동(80.8%)이 질병을 앓는 가족이 없는 아동(71.4%)보다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01$), 부모사이에 다투는 빈도가 높을수록 구타발생률이 높았다($p=0.000$).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때 매를 맞지 않은 비율(39.4%)이 전체(26.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참고문헌

- 곽영숙, 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6; 37-52, 1987
- 김광일, 고복자.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1987
- 안동현, 홍강의.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53-65, 198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제1권,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서울, 1980
- 홍강의. 아동구타의 대책과 예방, 정신건강연구, 6; 82-93, 1987
- 홍강의, 장경준, 문형로, 안동현, 손세정, 박순미. 18개월 여아에서의 아동학대, 소아과, 22; 61-67, 1988
- Clake, J. *The incid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population at the Utah State University Industrial School,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1976*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and Droegemueller, W. *The battered-child syndrome. JAMA, 181; 105-112, 1962*
- Lieh-Mak, F. L. and Chuang, S. Y. *Characteristics of child battering in Hong Kong; A controlled study. Brit. J. Psychiat, 142; 89-94, 1983*
- Martin, H. P. *The child and his development, in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ed. Kempe, C. H. and Helfer, R. E., J. B. Lippincott, Philadelphia, 1972*
-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Study findings-study of national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Human Development Services, 1988, pp.3-11*
- Rimm, D. C. and Masters, J. C. *Behavior therapy. Academic Press, New York, 1979, p.318*
- Steinmetz, S. *The use of force for resolving family conflict. Family Coordinate, 26; 19-26, 1977*